

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아카데미 체험 소감(2015. 5 . 19 .)

학교명	신명여자 고등학교	이름	김민주
체험 소감			
<p>먼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되고, 어떻게 측정 하는지 알수 있게되어서 좋은경험이였고, 특히 미세먼지가 위험하다는건 알지만 어떻게 방지해야 할지는 몰랐는데 자세히 알게되어 가족들,친구들에게도 알려 건강을 챙겨야 겠다.</p> <p>특히 대기오염 측정기 로 NO_2 의 수치를 기록하고 측정값의 평균을 내어봄으로써 연구원 체험을 한것 같은 기분 까지 들었다.</p> <p>이곳 연구원이 되기까지 여러과정의 공부를 다쳐야 한다고 들었는데,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해 힘쓰시는 것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.</p> <p>이번 경험으로 연구원이라는 직업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, 대기오염 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는 계기가 될것 같다.</p>			
건의 사항			

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
환경아카데미 체험 소감(2015. 5 . 19 .)

학교명	인천 신명여자 고등학교	이름	박민재
<p>체험 소감</p> <p>오늘 현장체험으로 나의 진로에 맞는 보건환경 연구원에 와서 환경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게되고, 새롭고 다양한 것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.</p> <p>먼저 미세먼지나 환경에 대해 영상도 보고, 조사 표도 보며 알아보고 나서 옥상에 가서 대기관측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관측하는 기구들을 보며 세세하게 구조를 알 수 있었다.</p> <p>하루동안 관측한 먼지가 평년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많이 쌓이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.</p> <p>또 환경으로는 관심이 별로 있었는데 많은 기회로 환경분야 진로에 대해서 많은것을 알아보고 환경쪽으로 연구해보면 새롭고, 재밌을 거 같다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.</p>			
<p>건의 사항</p>			

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아카데미 체험 소감(2015. 5 . 19 .)

학교명	신명여자고등학교	이름	이소현.
<p>체험 소감</p> <p>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,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지만, 선생님의 강연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, 파트별로 하는 일들에 대해 알게 되어서 신기했다. 가끔씩 미세먼지 주의보 문자가 올 때, 그냥 보고 무시했던 게기가 더 많았지만, 앞으로는 관련 문자가 오는 날에는 마스크 착용, 신의힘을 지시, 목마음이 지시 등 배운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. 그리고 옥상이 올라가서 먼지들을 측정하는 기계들 보고, 하루 동안 모인 먼지들을 보았을 때, 대기 중에 먼지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.</p> <p>마지막으로 연구원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다. 직접 보고, 체험하고, 강의로 설명도 듣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, 처음 들어왔을 때 다 강의들을 듣고, 체험한 후에 내가 내가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,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서 되게 되게 좋았다. 다음에 체험을 좀 더 많이 해보고 싶다.</p>			
<p>건의 사항</p> <p>체험하는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.</p>			

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아카데미 체험 소감(2015. 5 . 19 .)

학교명	인천 신명여자고등학교	이름	이유진
체험 소감			
<p>처음에 도착했을 때 환경을 알고자신분이계서, 아,여기가 연구원구나 실험 싶었다.</p> <p>강의시간에는 보건환경연구원분들이 하시는 일이나, 미세먼지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다.</p> <p>기공식 간접재난자 같은 거에서 문자가 올때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서</p> <p>우리에게 문자가 오는 건지 궁금했는데 모든 직접 미세먼지 측정하는 곳을 직접보고</p> <p>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는 지 알게되었다. 또 친구들이 직접 측정하온 수치로 현재 우리</p> <p>인천의 공기 환경이 어떤지 알 수 있었다. 기준치, 경보란 등도 알게 되었다.</p> <p>연구원에 대해 굉장히 궁금했지만 정보가 별로 없어 알 수가 없었는데, 이 계기로 연구원이</p> <p>되는 방법을 알게될 것 같아 공에 대해 더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었던</p> <p>것 같다.</p>			
건의 사항			
<p>환경쪽 말고 다른 파트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</p>			

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아카데미 체험 소감(2015. 5 . 19.)

학교명	신명 여자 고등학교	이름	박 유빈
체험 소감			
<p>처음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에는 솔직히 환경에 대해 관심이 없어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도착하고 나서 연구원분의 강의를 들으며 집중하게 되었을 땐 여느사람과 정말 재밌게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다. 연구소에서 하는 다양한 실험과 보건에 관련된 연구부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강의에서 본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알고싶었다.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대기오염물질을 관측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측정할 대표 10명씩을 뽑는다고 해서 일부러 손을 들어 9조중의 변화를 관측했다. 그런데 앞에 관측한 반 학생과 다르게 내가 측정한 수치는 계속 증가되서 '이 측정값이 안전한건가' 하는 마음에 연구원께 물어보니 9조중의 수치는 단위가 ppm 인데 여기에 1000을 곱해 120 이 넘지 않는다면 안전하다고 하셨다. 내가 측정했던 최고 수치는 0.0169ppm. 1000을 곱해도 16.9로 120을 넘지 않는 안전한 정도였다. 다시 강의실로 내려와 전체적인 SO₂, NO₂, O₃, PM₁₀, PM_{2.5}의 수치를 그래프로 보며 현재 우리 인천의 대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다.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필요하지 않은 전기는 쓰지 않는 등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겠다고 생각했다.</p>			
건의 사항			

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아카데미 체험 소감(2015. 5 . 19 .)

학교명	신명여자고등학교	이름	원주연
<p>체험 소감</p> <p>오늘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아카데미를 체험하면서 미세먼지와 오존 등에 대해 배웠다. 미세먼지에 PM₁₀과 PM_{2.5}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,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등록해서 인체에 많이 유해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.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것은 알았지만 발암물질로 등록됐다는 사실은 처음 알고 매우 신기했다. 또 도로 물청소가 미세먼지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. 대기 오염은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고 그것을 체험해 보았다. 내가 맡은 부분은 미세먼지 PM₁₀ 이었는데 미세먼지는 하루 기준이라 많이 변하지 않아서 12번 측정한 값이 일정했다. 보건환경연구원을 사실 처음 알게 되었는데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것 같아서 정말 좋았다.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되면 또 가보고 싶다.</p>			
<p>건의 사항</p>			